

행복한 미소가 넘치는 해피니스CC로 초대합니다!

회원모집 안내

(단위:백만원)

구 분	분양금액	구좌	회 원 특 전
VVIP (A형)	700	3좌	- 정회원 1인, 지정회원 2인 그린피 면제 - 정회원 동반 3인 그린피 50% 할인, 골프텔 할인 - 무료회차 25회(비회원,지정회원 위임시 70%할인) - 무기명카드 1매 / 년 120회(월 10회 소멸형 / 1일 1회)
VVIP (B형)	700		- 회원없음. 무기명 1매, 골프텔 할인 - 그린피 70% 할인, 연 60회(1회 4인,1팀 기준 / 월 5회 소멸형 / 1일1회)
VIP 정회원	500	1좌	- 정회원 1인, 지정회원 2인 그린피 면제 - 정회원 동반 3인 그린피 50% 할인, 골프텔 할인 - 무료회차 20회 - 무기명카드 1매 / 년 120회(월 10회 소멸형/1일 1회)
하트 정회원	320	10좌	- 정회원 1인, 지정회원 1인 그린피 면제, 골프텔 할인 - 무기명카드 1매 / 년 72회(월 6회 소멸형 / 1일 1회)
해피 정회원	180	4좌	- 정회원 1인 그린피 면제, 골프텔 할인 - 무기명카드 1매 / 년 36회(월 3회 소멸형 / 1일 1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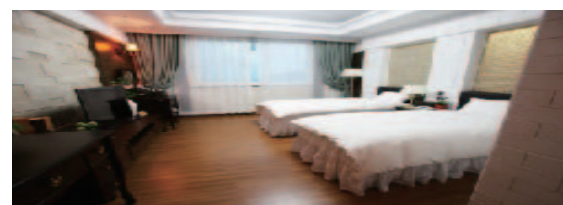
회원권 문의 전화

☎ 061)330-5004

2026년 연단체모집

- 신청조건** 1부 2팀, 2부 3팀 이상
레스토랑 중,석식 이용시 우선 배정
- 모집코스** 격월(회,대) 또는 대중제 선택
- 접수기간** 2025.10.14.(화) ~ 모집 종료시 까지
- 할인혜택** 월별 그린피 추가 할인 혜택
총무, 회장 2인 고정 할인 그린피 제공(3팀 이상 진행시)
레이디, 시니어 추가 할인
7,8월 연단체 진행시 특별 할인 혜택
연말 우수 연단체 선별하여 멤버 전원 혜택 제공
- 접수방법** 연부킹 신청서 작성 (신청서: 해피니스cc 홈페이지 ->정보마당 ->자료실)
이메일 접수 : happinesscc@hanmail.net

골프호텔 객실



- 2인실 -



- VIP 4인실 -



- 별채 -



- 별채 -

KPGA KLPGA 다수개최 전문화된 코스관리를 통한 최상의 잔디품질 유지!



제1회 해피니스 광주은행 오픈 | 우승자 강 경 남



휴먼 코스 - 숲과의 동행

자연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설계한 샷이 요구되는 휴먼코스, Teeing Ground에서 서면 테아웃의 숲이 거대하게 펼쳐집니다.
전연의 계곡과 언덕 사이로 방파의 복병이 기다립니다.
최종적이고 전략적인 샷이 요구되는 코스입니다.
전체적으로 짧은 거리와 코스이지만 오르막과 내리막의 반복과 때로는 숨겨진 골짜기를 건너서 플레이를 해야 하며 그린 주변의 다양한 조형의 변화와 숲으로 에워싸인 코스들은 쉽게 공략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샷의 구사가 스코어를 줄이는 관건이며 Target Zone을 놓칠 경우 다음 샷에서 공략의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집니다.



해피니스 광주은행 제55회 KPGA 선수권대회 | 우승자 이 상 희



해피 코스 - 자연에 대한 도전과 순응

푸른숲의 절묘한 조화와 완 폭의 수제화처럼 펼쳐지는 코스로 전연의 자연자원과 호수를 끌어들이는 필드는 모든 클럽을 사용할 수 밖에 없는 다양한 묘미가 살아 있습니다.
물과 바람이 벗어난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골퍼도 또 하나의 자연이 됩니다.
대부분의 코스들이 완능에 들어오며 광활한 부지에 개구, 연못을 좌우로 거느린 코스로서 패가리에 의한 무덤이 있습니다.
플레이 공간이 넓게 계획되어 무리없는 플레이가 가능하지만 도전적인 플레이에는 보상을 미스샷에 대해서는 당당한 벌칙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2회 해피니스 송학건설 오픈 | 우승자 김 우 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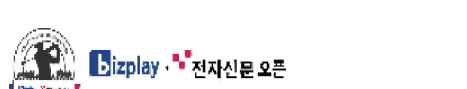


하트 코스 - 물과 호수의 유혹

드넓은 연신경을 또 하나의 필드로 끌어들이었습니다. 영동관 호수, 코스와 코스를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물의 코스, 부드러운 편안한 샷이 라운딩의 즐거움을 더합니다.
때때로 난이도 높은 코스들이 배치되어 도전적인 샷에 대한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계곡을 중심으로 여유로운 분위기의 공간을 준비해 순환하는 이정도로 구성되어 캐파에 최우의 안락과 신사면이 각 출마다 트러블 요소로 작용한다.



제2회 비즈플레이-전자신문 오픈 | 우승자 강 경 남



힐링 코스 - 산과 계곡에 대한 도전과 순응

산과 계곡을 따라 자연 원형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코스를 살포시 먼저놓은 친환경 코스입니다.
난이도 높은 캐파와 조이를 구가서 단지 높은듯한 파도 그린은 쉽게 공략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자연이 유도하는 대로 순응하며 편한 마음으로 코스를 공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합니다.
산 정상에서의 티샷과 코스 중심에 자리잡은 호수를 만끽하는 동안 자연과 호흡하며 힐링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광남일보·해피니스 오픈 | 우승자 리 슈 영



히든 코스 - 숨겨진 절경속에서의 휴식

무등산 경관이 관능에 선명하게 보이는 코스로, 기존 4개 코스들의 특징만을 살려서 만들어낸 마지막 해피니스의 걸작입니다.
산과 계곡 호수가 어울려 있어 때로는 도전적으로 강하게, 때로는 자연과 더불어 부드럽게.
원샷 원중 해피니스의 마지막 코스에 아름다운 도전을 해 보십시오.